

초·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린 가곡, 가사, 시조음악 내용의 문제점 분석연구

문 현*

차 례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및 절차

II. 본 론

1. 수록현황
2. 음악미학적 특징
3. 향유층 및 전문성
4. 유래
5. 노래말
6. 악조
7. 종류
8. 연주형태
9. 장단
10. 장(또는 절) 구분
11. 가창 제재곡 평시조 오선악보의 제검토

III. 결론 및 제언

*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에게 우리민족의 정신적 근간이 되는 국악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7년 12월에 제7차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초, 중, 고등학교용 음악교과서가 오는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으로 안다. 현재 제6차 과정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곡중 가창 제재곡으로 단연 민요가 으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통성악곡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악곡이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서 전승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요를, 그것도 통속적으로 잘 알려진 민요 위주로 교과과정이 짜여있음은 다양한 우리의 노래문화를 알리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 제6차 교육과정으로 기출판하여 학교현장에서 사용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음악교과서에 민요외의 비중있는 악곡으로 소개된 時調를 비롯하여 역사적 유래, 전승지역 및 음악적 특징 등에서 유사한 그래서 正歌로 통칭되기도 하는 歌曲과 歌詞까지 포함하여 각각의 수록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들 음악의 실체를 바르게 소개함은 물론, 정확하게 익히고 감상하게 하며, 확정한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되어지는 새 음악교과서에, 본고에서 분석된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어 실려지지 않았으면 한다.

시조를 비롯한 가곡과 가사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선비들과 새로운 음악문화를 담당하게 된 중 인출신의 가객과 풍류객들에 의해 성장되었고, 이를 통하여 음악 자체의 즐기 위함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자신의 마음 다스리기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향유되었던 음악이었다. 현대물질 문명 속에서 자꾸만 생활리듬이 빨라져만 가는 세태 속에서 선율의 굴곡도 완만하고 템포도 느려 호흡의 절제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류의 음악 익히기는 건강증진과 정서순화를 꾀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 앞으로 범국민 가창음악으로서의 운동도 추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2. 연구범위

현재 일선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초등학교 3년부터 고등학교 1년까지의 음악교과서 중 본 고에서는 35종을 입수해서 이들 중 시조를 비롯한 가곡, 가사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언급된 20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그 수록내용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참고한 35종의 음악교과서 및 이중 가곡, 가사, 시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20종의 교과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학년별		출판사명	저자명	발행(초판) 연월	정가관련 수록교과서
초등 학교	3학년	국정교과서(주)	장창환외 6명	1996.3	
	4학년	국정교과서(주)	장창환외 8명	1996.3	
	5학년	국정교과서(주)	장창환외 8명	1997.3	○
	6학년	국정교과서(주)	장창환외 8명	1997.3	
중 학 교	1학년	보진재(주)	정세문, 천기석, 김영희	1996.3(1995.3)	○
		음악춘추사	양재무	1996.3(1995.3)	○
		현대음악출판사	신귀복, 강덕원	1996.3(1995.3)	○
		동아출판사(주)	이홍수, 황병훈, 정미령	1996.3(1995.3)	○
		지학사(주)	정영택, 허화병	1996.3(1995.3)	○
		삼호출판사	안민호, 한재희, 김성심	1996.3(1995.3)	○
		장원	류덕희	1996.3(1995.3)	
	2학년	동아출판사(주)	이홍수, 황병훈, 정미령	1996.3	○
		보진재(주)	정세문, 천기석, 김영희	1996.3	○
		장원	류덕희	1996.3	○
		현대음악출판사	신귀복, 강덕원	1996.3	
		지학사(주)	정영택, 허화병	1996.3	
		음악춘추사	양재무	1996.3	
		삼호출판사	안민호, 한재희, 김성심	1996.3	
	3학년	보진재(주)	정세문, 천기석, 김영희	1998.3(1997.3)	○
		현대음악출판사	신귀복, 강덕원	1999.3(1997.3)	
		두산(주)	이홍수, 황병훈, 정미령	1997.3	
		음악춘추사	양재무	1999.3	
		지학사(주)	정영택, 허화병	1998.3	
		삼호출판사	안민호, 한재희, 김성심	1998.3(1997.3)	
		교학사(주)	이용일, 김우진	1998.3(1997.3)	
		장원	류덕희	1999.3(1997.3)	
고 등 학 교	1학년	보진재(주)	정세문, 천기석, 김영희	1999.3(1996.3)	○
		현대음악출판사	신귀복, 강덕원	1999.3(1996.3)	○
		세광음악출판사	김준수, 이동훈	1996.3	○
		두산(주)	이홍수, 황병훈, 정미령	1999.3(1996.3)	○
		태림출판사	우동희, 박종인	1999.3(1996.3)	○
		도서출판 태성	조창제	1999.3(1996.3)	○
		법문사	이언도, 백기현, 허기식	1999.3(1996.3)	○
		세광음악출판사	오동일, 고춘선	1999.3(1996.3)	○
		지학사(주)	정영택, 허화병	1996.3	○

3. 연구 방법 및 절차

각 교과서별로 수록된 가곡, 가사 및 시조에 대한 악곡 설명문 및 가창 제재곡으로 실린 오선악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설명문은 음악 미학적 특징, 향유층 및 전문성, 유래, 노래말, 악조, 종류, 연주형태, 장단, 장(또는 절) 구분 등으로 세분하여 검토할 것이며, 제재악곡은 다시 조표, 음고, 템포, 요성, 꺾는 음 등의 시김새, 쉼표 및 배자법 순으로 음악 자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II. 본 론

우선, 각 교과서별 정가관련 수록 내용을 감상과 제재곡으로 각각 세분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악곡별로 서론 제3항의 연구방법 및 절차항에서 거론된 세부항목들에 대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수록 현황

초등학교 교과서로는 유일하게 5학년용 교과서에서 시조에 대한 설명이 있을 뿐이고, 본격적으로는 중학교 과정에서 시조를 중심으로 가곡과 가사에 대한 설명 또는 악보가 감상곡으로 소개되어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도 1학년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2, 3학년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이들 악곡에 대한 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아마도 중1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2, 3학년 과정에서는 그 외 다른 악곡을 소개하기 위한 조치인 듯하다. 사실 일부 교과서에서는 국악공연장에서도 좀체로 보기 힘든 범패라든가, 악장, 창사 등까지도 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시조 중에서도 평시조가 정식 제재곡으로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익히게끔 되어있고, 한 교과서에서는 같은 시조시를 노래말로 하는 가곡을 시조와의 비교를 위해 관련악곡으로 오선악보로 실고있기도 하다.

비록 전체 악곡에서 이들 가곡, 가사, 시조의 게재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나, 우리의 대표적인 예술성악곡으로서의 이들 악곡에 대한 인사치레는 충분히 한 셈이다.

세부적인 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교과서별	수록 현황별	감 상			제재곡(또는 중심악곡)		토막문구
		설 명	노래 악보	장단악보	노래 악보	장단악보	
초5	국정	시조					
중1	보진재	가곡, 시조	남창가곡 우조초수/ 평시조 '청산리' (오선)	시조(오선)			
	음악춘추	가곡, 가사, 시조	평시조 '동창이' (오선)				
	현대음악	가곡, 시조	남창가곡 우조초수/ 평시조 '동창이' (오선)				
	동아	가곡, 시조	남창가곡 우조초수/ 평시조 '동창이' (오선)	가 곡 (오 선, 정간, 구음) /평시조 (오선)			
	지학사	가곡, 가사, 시조	남창가곡 우조초수/ 춘면곡/평시조 '동창 이'				
	삼호	가곡, 가사, 시조	평시조 '동창이' (오선)	시조(오선)			
중2	동아						가곡
	보진재						가곡, 시조
	장원	가곡, 가사, 시조	평시조 '동창이' (오선)				
중3	보진재				평시조 '동창이' (오선)		
고1	보진재	가곡, 가사, 시조	백구사/평시조 '동창 이'/남창가곡 우조초 수(오선)-참고곡		평시조 '태산이' (오선, 정간)		가곡, 가사, 시조
	현대음악				평시조 '태산이' (오선)	시조(오선)	가곡, 가사, 시조
	새광음악 (김준수외)	가곡, 가사	남창가곡 계면초수/ 백구사(오선)		평시조 '태산이' (오선)		가곡, 가사, 시조
	두산	가곡	태평가(오선)	가곡(오선)	평시조 '동창이'/남 창가곡 우조초수(오 선)-관련악곡	시조(오선)	
	태림	가곡, 가사, 시조			평시조 '동창이' (오선)	시조(오선)	
	태성	가곡, 가사, 시조	태평가/춘면곡/평시 조 '태산이'(오선)				
	법문사	시조	평시조 '동창이' (오선)	시조(오선)			
	새광음악 (오동일외)	가곡, 시조	남창가곡 우조초수/ 백구사/평시조 '동창 이'(오선)				
	지학사	가곡, 가사, 시조			평시조 '동창이' (오선, 정간)	시 조 (오 선, 정간)	

-수록 분량

제재곡 또는 관련곡 등을 제외한 감상편으로 소개된 가곡, 가사 및 시조에 있어서, 가곡은 16박 한 장단, 초장 및 제2장 정도까지를, 가사는 대개 6박 기준으로 두 장단(태성출판 고1 교과서의 춘면곡은 5장단까지 수록되었음)이, 그리고 시조는 초장만 수록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악곡명

가곡은 '동창이' 시조시를 노래말로 하는 남창가곡 우조초수대엽('초수대엽'은 '초사대엽'으로도 읽히나 본고에서는 '초수대엽'으로 통일하여 사용함)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같은 시조시로 노래하는 평시조와 비교하기 위함인 듯하다. 그 외에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및 태평가가 채택된 교과서도 한, 두 종 있었다. 그러나 남창가곡과는 전혀 창법이 달라 그 분위기가 색다른 여창가곡이 전혀 채택되지 않았음은 아쉬운 점이다.

가사는 전체적으로 가곡이나 시조에 비해 채택 빈도수가 월등히 낮았다. 현재 전하는 12개의 가사중 백구사와 춘면곡만이 소개되었다.

시조는 '동창이'와 '태산이'를 노래말로 하는 경제 평시조가 대부분이었다.

덧붙여, 제재곡에 수록된 시조나 가곡을 어느 서양악에서처럼 '제창'으로 표기했는데, 원래의 전승형태는 독창곡임을 참고로 언급은 해야 할 것이다.

2. 음악미학적 특징

몇 마디의 짧은 글로 축약하여 가곡, 가사 및 시조의 음악미학적인 특징을 기술하기란 그리 쉽지 않겠으나, 이 점을 언급한 교과서 및 교과서별 내용은 다음 쪽의 <표3>과 같다.

현재 출판되어 있는 각종 국악개론서 중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을 뿐더러, 있다해도 명쾌한 글을 접하기 어렵다. 사실 이는 음악의 미학적인 해석 범주에 드는 것이라 할진대 아직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이 별로 없는 국악학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인지 교과서에서도 가곡, 가사 및 시조의 특징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기술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문구도 없지 않았다.

박미경의 논문(35-36쪽; 1999. 6. 30)에서 지적한 대로, 가곡과 같이 아직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은 음악들이 현대인들에게 생활음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래가 어떻고, 악곡의 이름, 종류, 악조, 장단 등등에 대한 고답적인 설명보다, 악곡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는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는 소위 미학적 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한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가의 아름다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야겠다. <표 3>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생략한다.

<표 3>

교과서별	악곡별	가 곡	가 사	시 조
중1	보진재	고상한 예술성악곡		가락, 화성보다는 다이내믹한 구성미와 깨끗한 기상이 특징임
	음악춘추		향토적인 선율에 얹어 부르는 형식의 노래	
	동아			가락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깨끗한 기상을 담고 있음
	지학사		속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음을 떨거나 흘려내리기도 함. 음악적 특징은 섬세하고 여유가 있으며 감정표현이 다양함	셈여림의 변화와 표현이 풍부하고 소박하고 정중하며 폭넓은 변화의 멋이 있음
	삼호	자연스런 발성으로 노래부르는 깨끗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는 구성진 전통성악곡	향토적이고 섬세하며 느린 음악	가곡과 동일
중2	장원		가락이 유창하고 섬세하며 완만한 곡조로 불림. 아악의 형식을 유지, 약간의 민속조를 도입했음	
고1	보진재		가락이 매우 유창하고 섬세함. 유장한 음악	단조로우면서 구성진 맛이 있음
	세광음악 (김준수의)	음악적 예술성은 시조나 가사에 비해 매우 높음	고상하고 우아한 노래로 가곡, 시조와 함께 3대 가악으로 불려짐	
	두산			느린 곡으로 깨끗하고 무거운 느낌이지만, 섬세한 가락이 잦은 변화를 보임
	태림	가사보다는 악곡 자체를 중요시하는 예술성이 높은 음악		
	법문사			일정한 리듬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템포가 느려 한가롭고 무거운 느낌을 줌. 장식음이 많지 않은 단순함속에서 보여지는 깨끗한 기상과 변화있게 쓰이는 셈여림의 미묘함속에서 생기는 속깊고 구성진 맛 등이 그 생명임
	세광음악 (오동일의)	특히 모음의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임.		

3. 향유층 및 전문성

<표 4>

교과서별	악곡별	가 곡			가 사			시 조		
중1	현대음악	전문음악인의 노래						대중(비전문인)의 노래		
	동 아	전문인들에 의해 불려짐								
	삼 호	전문가의 노래			전문가의 노래			누구나 부르는 대중의 노래		
중2	동 아	양반층에서 주로 불림								
	장 원							가곡에 비하면 훨씬 대중화된 지식인 중심의 노래		
고1	보 진 재	옛 선비들이 즐겨 불렀다						가곡의 격식이 번거롭고 까다로워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		
	현대음악							일반인이 부르는 노래		
	태 성	지식층 및 상류사회에서 애호받던 음악								
	세광음악 (오동일외)	가곡, 가사, 시조 같은 정가는 사대부의 풍류가객들이 주로 부르던 노래								
	법 문 사	전문가의 노래						선비들의 대중적인 노래. 일반인의 노래		

이를 요약하면 가곡과 가사는 예술적으로 시조에 비해 높고 그래서 가곡과 가사는 전문가의 노래요, 시조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노래라는 얘기이다. 이러한 식의 정의는 국악관련 개론서 등에 상투적으로 나오는 문구이기도 하다. 물론, 가곡과 가사에 비해 시조는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성창될만큼 대중적인 사랑을 누린 것은 사실이나, 이를 두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쉬운 음악이라는 논조는 수긍하기 어렵다. 역설적으로 가곡과 가사음악에 비하여 시조음악에서 쓰는 음재료(음계)는 3 내지 4음이고, 특히 평시조는 3음계(이들 세 가지 음중에서도 임중음은 본 음정보다 훨씬 낮고, 또 출현하자마자 바로 한음 아래인 중려음으로 흘러내리는 음기능을 지닌 불안정한 음이어서 평시조 음악을 만드는 기동역할을 하는 음은 황중, 중려의 두가지 음에 지나지 않음)에 지나지 않아서 같은 조건에서 歌者가 시조다운 노래를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공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조는 무조건 쉬운 음악으로 치부하는 문구는 앞으로 꼭 수정되었으면 한다.

4. 유 래

<표 5>

교과서별		악곡별	가 곡	가 사	시 조
중1	보 진 재		전통이 오래됨		
	지 학 사		시원은 조선후기	조선 중기	조선 중기
중2	장 원			조선 중기 이후부터 생겨남	
고1	세광음악 (김준수외)			조선 후기에 발생	
	태 립		고려시대 때부터 부른 것으로 추측		조선 후기에 발생
	태 성		조선시대 영·정조 때부터 애호		조선시대 후기에 발달
	세광음악 (오동일외)			조선 후기에 형태를 갖추었음	
	지 학 사		조선시대 후기부터 변창한 노래		

악곡의 유래에 있어서는 학자마다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한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성장된 시기를 대략 조선조 후기로 잡고 있다. 조선조 후기는 송방송의 책(367쪽; 1985. 8. 30 중판)에 의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직후부터, 갑오개혁이 일어난 1894년까지로 잡고 있는데, 이 시기의 음악사회적인 상황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과 당파싸움 등으로 사회가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양반사회체제가 붕괴되고 대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중인출신의 가객과 풍류객들의 음악활동이 활발한 시기이다. 따라서, 중1(지학사), 고1(김준수외, 세광음악), 고1(태림) 및 고1(오동일외, 세광음악) 교과서에 가곡, 가사 및 시조음악의 시원을 조선조 후기로 잡음은 단견이고, 그 이전으로 소급시켜야 할 것이다. 고1(태림)의 경우에는 가곡의 시원을 고려시대 때부터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보이는 바, 이는 가곡의 모체가 된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이 모두 고려가요인 鄭瓜亭곡에서 나왔다는 1610년에 지은 『양금신보』의 글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송방송의 위책에서 현행 12가사의 전통은 19세기 말기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426쪽), 현행 평시조는 늦어도 18세기 말기나 19세기 초기에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27쪽)고 했지만, 가사나 시조의 시원 역시 좀 더 소급할 수 있다고 본다.

5. 노래말

<표 6>

용어명 교과서별		시조시	가사	사설	노래말	기 타
초5	국 정	시조	시조			
	보 진 재	가곡, 시조	가곡, 시조			
중1	음악춘추		가곡	가사		
	지 학 사	가곡	가곡/ 가사(장편의 가사)			
	삼 호	가곡, 시조		가사(장편사설)	가곡, 시조	
	동 아		가곡			
중2	장 원					가사 - 장편의 노래
	보 진 재	가곡, 시조	가곡, 시조	시조		가사 - 장편의 시/ 서정적인 긴 시
고1	현대음악	가곡, 시조				가사 - 서정적인 긴 시
	세 광 (김준수외)	가곡, 시조	가곡			가사 - 장편의 시
	두 산	가곡/ 시조(시조)	가곡, 시조			
	태 림	가곡(시조의 시)/시조	가곡	가사, 시조		가사 - 가사체로 된 긴 시
	태 성	가곡, 시조		가곡/가사(가곡의 사설보다 더 긴 사설)	가사, 시조	
	법 문 사	가곡/ 시조(시조)	가곡			
	세광음악 (오동일외)	가곡, 시조	가곡, 시조			
	지 학 사	시조	가곡, 시조		시조	

본고에서 필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노래말’의 어의를 사전(이희승; 1988. 1. 15 제32쇄)에 서는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말’의 의미로 “사람의 사상, 감정을 나타내는 음성적 부호. 곧 사람의 생각을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 語辭, 言語, 言辭”로 나와 있다. 즉, 노

래의 언어라는 뜻쯤으로 풀이될 것이다.

‘가사’는 “가곡, 가요곡이나 가극, 그 밖의 노래의 내용이 되는 문구”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장르명인 가사음악과의 혼란이 우려되어 되도록 사용을 절제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 이와 비슷한 용어인 ‘辭說’은 “노래 따위의 적어놓은 글”로 새겨져 있어 국어 사전식의 뜻풀이로는 ‘가사’의 의미와 별로 구별이 안 된다. 그러나 국악학계에서 ‘사설’은 통념상 판소리와 같이 서사체이거나 긴 문장일 경우 일컫는 말로서의 분위기가 더 지배적인 듯하며, 운율이 내재된 定型詩歌인 경우는 ‘사설’ 표현 대신 ‘가사’라는 용어가 더 잘 어울리지 않는가 싶다.

한편, ‘시조시’에 대한 뜻새김은 사전에는 나와있지 않다. 대신 ‘시조’의 항목에서 문학쪽과 음악쪽의 뜻풀이가 각각 나와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음악쪽의 의미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시조와의 記述상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문학쪽의 의미를 지닌 ‘시조시’ 즉, 시조음악의 노래말로서의 의미로 구분하여 쓰고자 하는 의도에서일 것이다. 이는 각종 국악관련 개론서에 학계에서의 검증은 없었어도 이미 통용되는 어휘이기도 하다.

6. 樂 調

<표7>

교과서별		악곡별	가 곡	시 조
중1	현대음악			주로 3음음계의 계면조 사용
	지 학 사		음계는 계면조와 평조임	음계는 주로 계면조임
	삼 호		5음 구성의 평조 및 3음 구성의 계면조	3음 구성의 계면조
중2	장 원		음계는 평조와 계면조 사용	
고1	현대음악			주로 3음음계의 계면조 사용
	두 산		우조(평조)와 계면조로, 계면조는 황, 중, 임의 3음이 중심이 되는 음계	주로 3음으로 이루어진 계면조
	태 림		음계는 평조와 계면조의 두가지	주로 3음계의 계면조
	태 성		평조와 계면조 음계를 사용	
	세광음악 (오동일외)		5음음계의 평조와 3음음계의 계면조 음계를 바탕함	3, 4음음계의 계면조(비교표에는 3음음계의 계면조로 기술)
	지 학 사		평조, 계면조	계면조

‘악조’라는 명칭은 서양의 조성음악과는 구별될 필요에 의해서 최근 학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음악사전에도 나와있지 않다.

-‘音階’에 대한 용어 사용의 부적절

서양음악에서 음계와 調性간의 개념차이가 있듯이, 調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평조(현행 가곡의 경우에는 우조와 동일하게 사용됨)와 계면조는 분명히 음계의 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1(지학사), 중2(장원) 및 고1(태림)의 경우에 평조와 계면조를 음계와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고 있는 듯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다.

-가곡과 시조의 계면조 악곡에 출현하는 음계

계면조에 속하는 가곡이나 시조의 경우, 3음 음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에는 모순이 있다. 물론, 계면조 가곡에서는 주로 3음 음계로 구성되었지만, 처음을 높은 음으로 지르는 삼수대엽, 소용, 언릉과 같은 악곡의 경우에는 4음 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言編과 같이 5음 음계로 구성된 악곡도 있어서 획일적으로 3음 음계라 할 수 없다. 시조의 경우에도 현재 전승되는 십수 종류중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경우에는 3음 음계로 구성된 계면조로 된 악곡이지만, 역시 가곡에서처럼 처음을 높은 음으로 지르는 지름시조 및 사설지름시조 계통 곡만해도 4내지 5음 음계로 구성된 계면조곡이다.

또한, 시조 종류중 羽調시조나 우조지름시조는 곡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면조에 속하는 악곡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고1(지학사)에서 시조는 계면조로 되었다는 설명은 보완을 요한다.

-가곡에서는 평조와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은 거시적으로 보면 맞는 설명이지만, 정확하게 논하자면 평조와 계면조가 섞여있는 소위 半羽半界의 악조도 남창과 여창곡을 합하여 전체 41종류(본고 제7항 종류 참조)중 5종류나 된다.

-가사는 장사훈의 책(476쪽; 1990. 6. 20 7판)에서, “가사는 평조와 계면조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 그 선법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한 바와 같이, 악조에 있어서 평조 아니면 계면조식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기 어려운 음악이다. 그래서인지 각 교과서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생략하고 있다.

7. 종류

<표 8>

교과서별	악곡별		시 조
	가	곡	
초등5	국	정	남자와 여자가 부르는 시조를 비교하자
중1	음악춘추	남창가곡 24곡, 여창가곡 14곡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가 있다
	동 아	남창, 여창, 남녀창 가곡의 세 유형이 있고, 현재 26곡이 연주된다	지역에 따라 경제(서울), 완제(전라도), 영제(경상도), 내포제(충청도) 등이 있고, 노래부르는 법에 따라 평시조, 지름시조, 엮음시조 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
	삼 호	현 155곡이 전승	
고1	보 진 재	남창, 여창, 혼성. 26곡	시조의 유파로 시조창(한문시에 가락을 붙여 부르는)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억양이나 표현에 차이가 있다. 평시조, 사설시조, 지름시조가 있다
	두 산	남창, 여창, 남녀창 남창 24곡과 여창 14곡이 있으며, 끝곡은 태평가를 남녀창이 함께 한다.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
	태 립	남창가곡과 여창가곡으로 나뉜다.	평시조를 원형으로 하여 창법에 따라 지름시조, 사설시조 등이 있으며, 지방에 따라 경제, 영제, 내포제 등으로 나뉜다.
	태 성	남창가곡과 여창가곡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법 문 사	26곡의 성악모음곡	창제에 따라 서울 중심의 경제와 지방의 향제(내포제, 완제, 영제 등)로 나누어지며, 악곡의 형태에 따라 평시조(중간높이의 중려음으로 시작)를 원형으로하여 중허리시조(초장 셋째장단의 첫음이 청황종)와 지름시조(청황종의 높은 소리로 질러내어 시작), 사설지름시조(지름시조와 같으나 중장에서 중심음인 황종 대신 4도위의 중려음을 혼드는 소리로 낸다) 등으로 파생된다.
	세광음악 (오동일외)		지방에 따라 경제, 완제, 영제, 내포제 등으로 나뉘며, 부르는 방식에 따라 평시조와 지름시조, 사설시조 등이 있다.
	지 학 사		원형은 평시조로, 지방에 따라 경제, 완제, 내포제, 영제 등이 있으며, 부르는 방법에 따라 평시조, 지름시조, 중거시조 등이 있다.

-가곡

남창가곡은 25곡이요, 여창가곡은 14곡이고 여기에 남녀창 가곡 태평가를 각 한 곡씩 두 곡으로 간주하면 전체 가곡의 종류는 41곡이 된다. 그리고 하나의 악곡에 적게는 한 개의 노래말(시조시)로부터, 많게는 10개의 노래말을 엮어 노래부르게 되어 있는데, 이때 노래말의 차이에 따라 약간씩 그에 따른 선율도 조금씩 바뀌게 되어 이를 모두 합치면 그 곡 수는 더더욱 방대해진다.

참고로, 김기수편 두 악보집(1984. 11. 30 재판)에는 남창 100곡, 여창 88곡으로 총 188곡(여창곡으로 장진주사가 포함됨)이 수록되어 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황준연이 쓴 '가곡'항을 찾아보면, 남창 100곡, 여창 87곡으로 총 187곡이 전한다고 되어있으며, 장사훈의 책(429-431쪽; 1990. 6. 20 7판)에는 하규일이 전승한 곡임을 전제하고 남창 85곡, 여창 71곡 등 총 156곡이 전해진다고 되어있다. 중1(삼호) 교과서에 총 155곡이 전승되고 있다고 기술한 것은 아마 장사훈의 책을 참조하여, 이중 남녀창인 태평가를 한국으로 보고서 산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시조

• 초등5(국정)

원래 시조는 가곡과는 달리 남창용과 여창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단지 창자의 음역에 맞게 노래부르면 되는데(참고로, 평시조의 경우 성인남자의 경우 첫 음이 중려음으로, 여자의 경우 이보다 4도 낮은 황중음으로 부르면 무난함), 이 교과서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르는 시조를 비교하자' 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남자와 여자의 음색이 달라 같은 시조곡을 불러도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 감상해 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향제시조인들 사이에서는 평시조에 속창(앞의 <표 3>에서 중1(지학사) 가사항목을 보면 이를 '속성'이라고 했는데, 이양교는 옛 명창들에게서 '속창'이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속성'이라는 표현은 절대 안 썼으므로 꼭 '속창'으로 써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여창 평시조라 할 경우에는 경제평시조에서 처럼 중장과 중장에서 속창을 넣어 노래하고 있으니 이러한 의미로 쓰인 표현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평시조의 원형은 어디까지나 鄕制가 아닌 京制인만큼, 교과서에서만큼은 먼저 경제로 지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자식으로 해석하여 향제식의 여창평시조를 공연히 복잡하게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중1(음악춘추), 고1(보진재, 두산, 태림)

시조의 종류로 마치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만 전승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

는데, 이외에도 중허리시조, 반사설시조, 사설지름시조, 각시조, 우조시조, 우조지름시조, 수잡가 등 대략 15종류가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줄고(153쪽; 1996.11.2)에서 언급한 바 있다.

• 중1(동아), 고1(지학사)

한 종류를 서로 다른 몇 개의 명칭으로 달리 부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지도상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중1에서 '엮음시조'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시조는 없고 '엮음지름시조', '사설엮음지름시조' 또는 '수잡가'로 불리는 것이 있으며, 고1에서의 '중거시조'는 위에서 언급한 '중허리시조'의 이칭이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문헌의 CD음반(1999.7)속의 해설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 고1(법문사)

괄호속에 지름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설명한 문구는 남창지름시조의 경우에 한하며, 여창지름시조의 경우에는 다르다.

• 고1(보진재)

시조의 유파로 시조창이 있다는 얘기는 모순이다. 또한 시조창의 설명으로 한문시에 가락을 붙여 부른다고 했으나, 이는 모든 시조음악에 통용될 수 있는 적합한 문구가 못된다.

-가사

현재 전승하고 있는 곡 수가 12가지인 점에 대해서 각 교과서마다 별 문제없이 잘 소개되어 있어서 <표 8>에선 제외시켰다.

8. 연주형태

<표 9>

교과서별	악곡별	가 곡	가 사	시 조
중1	보 진 재	세악반주		반주가 일정하지 않으며, 흔히 반주없이 노래. 장구반주로 혼자 부르는 경우가 많고, 장구도 없으면 무릎장단으로 치면서 불러도 좋음
	음악춘추		간단한 편성의 악기가 반주	보통 장구반주로 연주
	현대음악	실내악 반주가 따름		장구 또는 무릎장단을 치며 부르나, 간혹 대금 등의 악기가 반주하기도 함
	동 아	관현악 반주		장구 반주
	지 학 사	관현악 반주	장구반주에 의하여 많이 연주	장구반주나 간단한 악기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고, 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무릎장단에 노래
	삼 호		장구장단에 맞추어 노래. 악곡에 따라서는 반주없이도 부름	
중2	보 진 재	관현악 반주		흔히 반주없음
	장 원			반주는 장구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고1	보 진 재	관현악(기악) 반주	장구장단에 의해서 혼자 부르는 것이 원칙	
	세광음악 (김준수의)	관현악 반주	관악 반주. 시조와 같이 장구장단에 맞추어 혼자 부르는 것이 원칙. 그러나 관현악 반주가 있을 경우 피리, 대금, 해금, 장구로 편성하기도 하며, 피리나 대금 등 한 개의 가락악기에 장구를 곁들여 간략하게 반주하기도 함.	관악 또는 악기의 반주 혹은 무반주로 노래
	두 산	기악반주가 따름. 작은 규모의 관현악 반주		장구와 간단한 악기, 무릎장단
	태 림	관현악 반주	장구장단에 맞추어 부르며, 경우에 따라 대금, 해금, 세피리, 장구 등의 반주악기가 쓰임	대개 장구장단에 맞추어 부르는데, 경우에 따라 세피리, 단소, 대금, 해금 등의 악기로 반주하기도 함
	태 성	관현악 반주	보통 반주없이 장구장단에 의해서 부르지만, 반주를 곁들일 경우 장구외에 세피리, 대금, 해금 등의 가락악기가 추가된다	혼자서나 혹은 장구반주에 의해서도 부를 수 있고, 반주악기로는 세피리, 대금, 해금 등을 덧붙여 연주
	법 문 사	관현악 반주		장구장단. 대금 또는 단소가 추가. 형편에 따라 반주없이 무릎장단만으로 연주
	세광음악 (오동일의)	세악 편성의 관현악 반주	장구 장단만으로 불러짐	장구장단과 간단한 악기 혹은 무릎장단
	지 학 사	관현악 반주		장구나 무릎장단으로 부를수 있으며, 세피리, 단소, 대금, 해금 등의 반주에 따라 노래할수도 있다. 장구와 간단한 악기, 무릎장단

-가곡

세악, 실내악, 관현악 반주 등으로 그 명칭 상에서만 다를 뿐 올바른 표현으로 본다.

-가사 및 시조

간혹 간단한 편성의 악기 또는 관악반주 라는 문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거의 한결같이 장구반주 하나면 충분하고, 아니면 무릎장단만으로도 부를 수 있는 악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법으로 따지면 가곡도 연습 시에는 무릎장단을 치며 연습하고 있으며, 무대에서 정식으로 공연 시에는 가사나 시조도 가곡에서처럼 관현악 반주는 아니나 관악기 편성으로 불려지지, 설명 문구에서처럼 장구 하나로, 아니면 무릎장단만으로 불려지지는 않는다. 사실 이러한 식의 설명이 대부분의 국악개론서에 획일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 더욱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국악학계에서 그 오류를 하루속히 시정하였으면 한다.

9. 장단

<표 10>

악곡별 교과서별		가 곡	시 조	가 사
중1	동 아	16박 장단		
	지 학 사	16박과 10박	5박과 8박	
	현대음악		5박과 8박을 혼합한 장단	
고1	두 산	16박, 10박/ 10점 16박의 기본장단과 10점 10박의 편장단이 있음	5박, 8박	
	태 림		5박과 8박의 장단을 혼합하여 사용	느린 6박
	세광음악 (오동일외)	16박 또는 10박	5박과 8박	5박자와 6박자의 장단을 사용
	지 학 사	16박, 10박	5박, 8박	

가곡은 16박이 정형장단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단지 악곡명에 ‘編’자가 붙는 일부 가곡에 한하여 16박에서 변형된 10박 장단으로 노래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중1(동

아)에서 16박 장단만을 기술한 것은 치밀하지 못하다.

반면, 시조는 장단이 늘어나는 각시조, 사설지름시조, 수잡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초장과 중장이 5, 8, 8, 5, 8박으로, 종장 5, 8, 5, 8박으로 5박과 8박이 섞인 독특한 장단형태를 가지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향제의 경우는 언급 생략함). 그러나 문제는 가곡과 시조의 장단을 같이 비교하는 자리에서 중1(지학사), 고1(두산, 지학사)의 경우에서처럼 비교, 설명하면 이는 마치 시조도 5박 짜리 시조와 8박 짜리 시조가 서로 다른 악곡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줄 소지가 다분할 것 같다. 따라서 고1(현대음악, 태림)의 예처럼 설명하거나 아예 정확히 초, 중, 종장별로 장단 배열을 상세히 소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사 장단을 소개한 고1(태림)의 경우에는 느린 6박으로만 설명했는데, 5박 및 무장단으로 노래하는 악곡도 있으므로 치밀한 설명이 못 되고 말았다.

10. 章(또는 節) 구분

가사음악은 절 또는 마루로 구분하고 있어서 12개 악곡의 종류에 따라 그 節수는 다르지만 (그러나 가사 구분법에 대해서 본고에서 참고한 교과서에서는 언급내용이 없었음), 가곡은 전체 5장으로, 시조는 3장으로 구분하듯이, 모두 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에는 별 하자가 없었으나 다만, 고1(김준수, 이동훈저, 세광음악) 교과서에서 가곡의 구분을 ‘章’ 대신 ‘樂章’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11. 가창제재곡 평시조 오선악보의 제검토

가곡, 가사, 시조관련 악보는 가창제재곡으로 혹은 감상곡 등으로 일부 내지 전 곡을 수록해 놓았는데 대개 평시조악보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시조와 같은 노래말을 사용하는 ‘동창이’로 시작하는 남창가곡 우조초수대엽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들 악곡을 담은 악보는 대개 서양식의 오선악보를 사용하였으나 일부는 정간보와 함께 수록해 놓은 교과서도 있었다.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가창시에 부르는 다양하고 복잡한 시김새를 가능한 한 생략하여 악보를 간소화하려고 한 의도 자체는 좋았으나, 그러한 과정에서 일관성없이 요성을 비롯한 각종 시김새, 배자 및 숨표처리 등이 부정확한 곳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그 외에 템포, 박자, 조표, 음고 등의 표기체계가 제재 악보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가곡, 가사, 시조 관련 내용이 수록된 총 20종의 교과서 중, 제재곡(또는 중심악곡)으로 평시조 악곡이 수록된 교과서 7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표 11>

교과서별 항목별	중3 (보진재)	고1 (현대)	고1 (두산)	고1 (태림)	고1 (보진재)	고1 (세광음악, 김준수외)	고1 (지학사)
노 래 말 (시조시)	동창이 밝았느냐	태산이 높다하되	동창이 밝았느냐	동창이 밝았느냐	태산이 높다하되	태산이 높다하되	동창이 밝았느냐
편 곡 (역보)자					서한범 편	서한범 편	허화병 역
조 표	G조	G조	F조	F조	C조	C조	A [♭] 조
박 자 표	5/4, 8/4	5/4, 8/4	5+8/4	5+8/4	5/4, 8/4	5/4, 8/4	5+8/4
黃, 仲의 악보상 음고	d, g	d, g	d, g	d, g	d, g	d, g	e [♭] , a [♭] (실음 표기)
템포 및 악상기호	1박= 2~3초	♩=30, 정중하게	♩=30	♩=20~30	♩=35	♩=40	♩=30
장별구분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요성표기	전혀 없음	d, g, d'음 에 표기 있 으나 부정 확함	주로 d음 에, g음엔 한 곳. 그 러나 부정 확함	d 음 에 만 표기 있으 나, 이것도 부정확함	주로 g음(d 음엔 단 두 곳 에 만)에 표기. 떠는 음의 기법을 세 가지로 분 류했음	주로 g음 에, d음엔 단 두곳에 만 표기	e [♭] , a [♭] 음은 물론 e [♭] 음 에도 요성 표기가 보 이나, 역시 부정확함
꺾는 음 처리							
짧은 黃음 처리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노래말의 모음변화	배려 안됨	배려 안됨	배려 안됨	배려 안됨	배려 안됨	일부 배려됨	거의 배려 안됨 (두곳 배려)
기 타	고1(현대, 두산, 태림) 악보체계와 비슷함				고1(세 광) 악보체계와 비슷함		실제 노래 의 선율과 가장 근접 하게 꾸밈

1) 조표

#이 한 개(G조), b이 한 개(F조), 무조표(C조) 및 실음 표기를 위하여 다소 복잡하지만 b이 4개 붙은 조표(A^b조) 등 4종류의 조표 기호가 등장한다. 그러나 3음 음계인 평시조에서의 황중, 중려, 임중 음에 대한 실제 음고는 부기하여 혼란의 여지를 배제함이 좋을 듯하다. 특히 중3(보진재), 고1(보진재) 및 고1(지학사)의 경우에는 평시조 제재곡 바로 하단 또는 다음 쪽에 율명 또는 해당악곡의 정간보-고1(보진재)의 경우,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이 악보는 이양교편의 악보인데, 8박 짜리 장단은 모두 끝 한 박씩이 잘려나가 있는 오류가 발견됨-가 병기되어 있어서 각 율명에 해당하는 음고를 비교 설명해 줌이 더욱 필요하다.

2) 음고

중3(보진재) 교과서의 경우, 초장 '노고지리'의 '리'의 실제 음고는 탁중려→황중음(경제시조를 하는 이양교는 이러한 선율은 원래 향제식이고, 원래 경제식은 탁임중음으로 내야 함을 누누히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내지 탁임중음인데 그냥 황중음으로의 표기는 아무리 학생들을 위해 간단하게 기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오류는 이와 비슷한 악보체계로 된 고1(현대, 두산, 태림)용 교과서에서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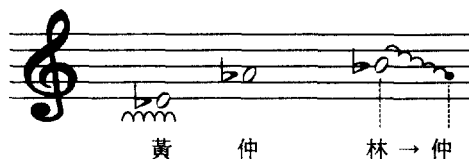
3) 템포

대개 1박이 2 내지 3초 걸리도록 표시되어 있다. 단, 고1(세광음악)의 경우에는 '♩=40' 즉, 1박이 1.5초로 약간 빨리 부르도록 되어있음이 다르다.

4) 요성

평시조에서 나타나는 요성 유형은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중려음의 요성으로 원래 떨지 않는 음이나 한 박 이상 지속될 때 마지막 박에서 본음을 약하게 울리는 듯한 기분으로 떠는 기법이 그것이며, 둘째는 황중음으로 이 음은 거의 예외 없이 출현하기만 하면 본음을 세게 떤다. 마지막 셋째로 중려음을 바로 윗음인 임중음(실 음고는 유빈음 정도로 낮다) 정도까지 치켜 올려떨면서 차차 중려음으로 퇴성하는 기법이 있다(다음 쪽 그림 참조).

고1(보진재)의 경우에만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요성기법이 보여지고 있을 뿐,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 중3(보진재)의 경우처럼 요성표기가 전혀 없는 교과서도 있다. 그러나 요성표기가 되어 있어도 대부분 정확하지 않고 애매하거나 아예 틀리게 그려놓은 곳 등 상당수 오류가 발견된다. 또한 고1(보진재)의 경우, 초장 둘째 각(높다하되)의 '하'자는 처음 한



박은 뻗다가 두번째 박에서 요성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에선 두 박을 처음부터 떠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양교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한 박만 요성하는 전통은 옛날 이주환이 초보자를 가르칠 때 떠는 음이 길어질수록 어려워니까 쉽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이후 계속 잘못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 박만 떨어야 되는데 두 박 떨어림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부분으로는, 초장 '태산이'의 '산', '피이'의 '이' 자리와 중장 '오르고'의 '고', '또 오르면'의 '또', 중장 '제아니'의 '니', '피만'의 '만' 등으로 이들은 모두 해당 첫 박은 뻗다가 마지막 박 한 박에서만 떨어도록 표기가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는 다른 교과서에서도 발견되나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한다.

5) 꺾는 음

실제와 가장 비슷하게 표기한 교과서는 <표 11>에서도 보듯이 고1(보진재)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가 초장 첫 각에서만 보일 뿐, 이후 똑같이 꺾는 음 처리가 나오는 부분(예 ; 초장 셋째각 제5박, 네째각 제4박, 중장 셋째각 제2박, 네째각 제2박 등)에서는 장식음 e음없이 g→d음으로만 그려져 있어 일관성이 없다. e음(울명으로 태주음에 해당)은 g음(울명으로 중려)에서 d음(울명으로 황중)으로 하행시에만 짧게 거치는 음이며, 반대로 d음에서 g음으로 상행시에 출현하지 않는 음으로, 이에 대해서도 평시조의 한 특징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6) 짧은 황중음

이 기법의 유무로 경제와 향재 평시조를 구분짓는 특징중의 하나가 됨으로,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표기함이 옳을 것이다.

7) 쉽표

중3(보진재)의 경우, 초장 셋째각(노고지리) 끝, 넷째각(우지진다) 끝, 중장 둘째각(아희놈은) 끝, 중장 둘째각(사래 긴발을) 끝에 붙은 쉽표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되어야 한다.



또한 중장 첫째각과 둘째각 사이에 쉼표가 있으나, 이 곳도 원래 숨쉬는 곳이 아니라 둘째각 제3박까지 이어서 불러야 한다는 이양교의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창제는 고음반에 담긴 옛 명창의 유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생략함). 이러한 숨자리에 대한 예는 고1(보진재) 교과서에 수록된 평시조의 동부분에서 발견된다. 참고로 향제시조의 경우에는 본 악보에서처럼 중장 첫 각 끝에서 쉬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혹 둘째각 제5박까지 쉬지 않고 부르는 예도 고음반 자료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8) 말 붙임새(배자법)

‘동창이’를 노래말로 하는 京制평시조의 경우에는 모두 중장 ‘소치는 아희놈은’에서 첫각 첫박에 ‘소’ 한자를, 셋째박에 ‘치는’ 두자를, 둘째각 첫박에 ‘아희’ 두자를 각각 배자한 악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환의 책(85쪽; 1987.11.20)에 수록된 악보의 배자법을 따른 것이다. 일찍이 시조명창 김태영을 비롯하여 그의 시조제자인 이양교, 김호성(비록 김호성의 시조보에는 이주환식 배자법을 따르고 있는데, 원래 김태영은 그렇게 안 불렀으나, 편의상 이주환식을 따라 기보한 것이라는 얘기를 필자는 직접 몇 해 전에 들은 바 있다) 및 성경린 등은 ‘태산이’를 노래말로 하는 京制평시조에서와 같이 중장 첫각 첫박에 ‘소치’ 두자를, 셋째각에 ‘는’ 한자, 둘째각 첫 박에 ‘아’ 한자, 넷째 박에 ‘희’ 한자, 여섯째박에 ‘놈’ 한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박에 ‘은’ 한자를 각각 배자함이 옳다는 주장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문현 145-147쪽; 1994.12).

그밖에, 글자를 해당음표 밑에 정확히 쓰지 않은 경우가 여러 교과서에서 발견된다. 일례로 고1(세광음악)의 경우,



와 같이 적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이'자를 꺾기 시작하는 첫 음인 g음 바로 밑에 써야 옳은 것이다.



9) 기타

- 참고한 악보에는 전부 청황중음에 속청(가성) 표기가 없다. 이의 유무로 경제와 향제 평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까닭에 속청표기를 정확히 해 줌이 옳다.

- 중3(보진재), 고1(현대음악, 두산, 태림, 지학사)에서 동창 와 같이 앞짧은음 표기를 하였으나 이럴 경우 첫 글자의 時價가 너무 짧다. 이는 고1(세광), 고1(보진재)의 예에

서처럼 태사 - 와 같이 표기해야 실제 가창과 비슷해질 것이다.

특히 중장 첫박에서 소 - 와 같이 표기하여 첫음부터 a(울명으로 임종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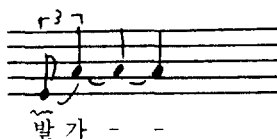
로 올려 노래하게 되면, 경제식이 아닌 향제식이요, 향제중에서도 딱딱한 느낌이 나는 경상도 지방의 영제창법이 된다.

-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지적할 사항이 더 있으나 생략하고, 시김새 표기상의 오류를 한가지만 더 지적하고 맺겠다.

고1(지학사)의 경우, 초장 둘째각 첫 박의 '밝았' 부분이 '바(e^b 요성)-알(a^b)-가(b^b장식음)

거쳐 a^b)'로 노래하고 있는데, 바알가 - -

이는 '발(e^b 요성)-가(a^b)'로 그대로 상행하여 노래함이 좋다.



사실 이러한 창법이 특히 향제시조인들에 의해서 애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는 잘못된 창법이라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몇몇 시조명창들의 애기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현재 사용중인 초등학교 3년부터 고등학교 1년까지의 음악교과서 35종을 선택하여 이중 가곡, 가사 및 시조가 소개된 20종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5년 때 처음 시조가 감상곡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중학교 1년에는 시조가 가곡, 가사와 함께 본격적인 감상곡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1년용 교과서에 가서는 감상곡으로 가곡, 가사, 시조가 소개되고 있음은 물론, 제재곡으로 평시조를 오선악보로 배우게 되어있음이 주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감상편에서는 시조를 비롯한 가곡, 가사의 유래, 향유층, 종류, 음악적 특징 등이 간략한 설명 및 비교표로 소개되어 있고, 각 악곡별로 부분적이지만 노래나 장단이 오선보 또는 정간보로 실려 있다. 감상편에서 악보가 실린 악곡으로 가곡에서는 ‘동창이’를 노래말(시조시)로 하는 남창가곡 우초초수대엽이, 가사는 백구사와 춘면곡이, 시조는 ‘동창이’와 ‘태산이’를 노래말로 하는 경제평시조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경제평시조는 고1용 교과서에서 제재곡으로도 부르게 되어있다.

각 교과서별로 가곡, 가사 및 시조에 대한 악곡 설명문 및 제재곡으로 실린 오선악보를 분석하였는데, 악곡별로 설명문은 음악 미학적 특징, 향유층 및 전문성, 유래, 노래말, 악조, 종류, 연주형태, 장단 등으로 세분하여 검토했으며, 제재악곡인 경제평시조는 다시 조표, 음고, 템포, 요성, 꺾는 음 등의 시김새, 쉼표 및 배자법 순으로 음악 자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본문에서 검토한 항목 순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명문

-음악미학적 특징

이에 대한 가곡, 가사, 시조별 명쾌한 설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음악적 아름다움이 잘 전달되어야 함에도 모호한 설명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대한 국악학계의 전문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향유층 및 전문성

가곡은 양반층이 부른 전문가의 예술성 높은 음악으로, 시조는 비전문가의 쉬운 대중음악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결코 시조가 예술성 낮은 배우기 쉬운 음악만은 아니다. 이에 대한 문구는 수정되어야 한다.

-유래

주로 그 시원 또는 변창시기를 조선조 중, 후기쯤으로 기술되어 있다. 가곡, 가사, 시조별로 그 선후가 있겠지만 대개 조선조 후기쯤에 선비와 새로운 향유층으로 등장한 중인들에 의하여 애호되었다고 추측된다. 다만 그 시원에 있어서는 학계의 견해가 분분한 상태이니, 일부 교과서에서 그 시원까지 언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함이 현명할 것 같다.

-노래말

각 교과서별로, 심지어 한 교과서 내에서도 노래말, 시조시, 가사, 사설 및 장편의 긴 시 또는 가사체의 긴 시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노래말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악조

평조와 계면조를 언급하면서 음계의 개념과 혼동하고 있는 듯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 교과서가 더러 보인다.

계면조에 속하는 가곡이나 시조의 경우, 3음 음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에는 모순이 있다. 4음 내지 5음 음계로 구성된 악곡도 있기 때문이다.

시조는 계면조로 되었다는 설명은 우조 계통의 시조도 있기 때문에 보완을 요한다.

-종류

가곡의 경우, 남창가곡과 여창가곡의 곡 수를 언급한 글에 의외로 오류가 눈에 많이 띈다. 수정을 요한다.

시조의 경우에는 마치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만이 전부인 듯한 문구를 접하게 되는데, 이의 수정을 요한다.

-연주형태

가사 및 시조의 경우 장구장단만으로, 이것도 없으면 무릎장단으로도 부를 수 있다 라는 식

의 문구는 수정되어야 한다.

-장단

가곡은 16박과 10박으로, 시조는 5박과 8박으로 언급함은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시조는 5박과 8박이 한 악곡에서 같이 쓰이고 있는 장단이기 때문이다.

2. 평시조 악보

대개 오선악보로 소개되어 있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정간보와 병행하여 게재하고 있는 것까지는 바람직한데, 오선악보와 정간보가 서로 다른 곳이 눈에 많이 띈다. 또한 전반적으로 실제 가창시와 비교하여 실린 악보의 기보 체계가 너무 판이하게 다른 곳이 많고, 각종 표기상의 오류도 눈에 많이 띈다.

조표는 G, F, C 및 A^b조 등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어느 경우라도 좋지만 율명의 실제 음고를 부기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의 소지를 피하게 하자.

요성 등 시김새의 표현은 가급적 살려 기보함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를 오선보로 꾸미면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국악곡은 정간보의 기보체계를 교육시켜 이로써 가르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같은 경제평시조도 창자에 따라 시김새의 처리, 선율 및 배자법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재곡 또는 감상곡으로 실는 악보에는 누구의 악보를 참고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창제를 기준으로 꾸몄는지를 명확하게 밝힘이 좋겠다.

제언으로,

현재 고1에서 제재곡으로 채택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어있는 경제평시조의 경우, 다양한 노래말로 바꿔 부르기를 시도함이 좋겠다. 그리고 그 노래말은 전통 시조시 뿐만 아니라, 기존 창작 시조시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직접 짓게하여 이를 불러보게 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또한 향제시조와의 가창 비교, 평시조 외에 지름계통 시조로의 교육확대 및 나아가,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도 시조는 물론, 가곡과 가사까지 가창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심화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金琪洙편, 『남창가곡백선』(은하출판사, 1984. 11. 30 재판)
- 김기수편, 『여창가곡 여든여덜넝』(은하출판사, 1984. 11. 30 재판)
- 문 현, “사설지름시조의 음악구조-林基俊 傳唱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1992. 8)
- 문 현, “평시조(경제)의 말 붙임새(排字법)와 음악장단 유형” 『定型詩歌』 창간호(국제정형 시가학회, 1994. 12)
- 문 현, “고음반에 나타난 사설시조 ‘나무도’의 선율구성-최일원, 고영태의 고음반과 이양교『시조창보』를 중심으로” 『韓國音盤學』제6호(한국고음반연구회, 1996. 11. 2)
- 박미경, “현대인의 노래장르로서 전통가곡의 재인식을 위한 시론” 『韓國音樂史學報』 제22집 (한국음악사학회, 1999. 6. 30)
- 백대웅, 『인간과 음악』 (도서출판 어울림, 1993. 3. 15)
- 『표준음악사전』(세광출판사, 1980. 6. 25)
-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85. 8. 30 중판)
- 이양교편, 『시조창보』 (서울가악회, 1994. 10. 15 재판)
- 이주환편, 『시조창의 연구』 (은하출판사, 1987. 11. 20)
- 이희승편,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8. 1. 15 제32쇄)
- 장사훈, 『최신 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90. 6. 20 7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9. 10 14쇄)

<음반 해설지>

- 문 현, 『문현의 京制時調-荊山の 璞玉같이』CD(Arch Polyphony Classics, 1999. 7) 해설지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Kagok, Kasa and Shijo in the music textbooks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Moon, Hyun

I have examined 20 different kinds of references of Kagok, Kasa and Shijo in the music textbooks ranging from the third grade of primary school to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10th grade) which are used as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 current music study.

Shijo is introduced in the listening part in the textbook of the 5th grade in primary school for the first time and Kagok and Kasa including Shijo in the textbook of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7th grade).

In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Kagok, Kasa and Shijo are introduced in the listening part with the staff notation of Pyoung-Shijo as a song to be taught.

Those textbooks with Kagok, Kasa and Shijo, include the origin, singers and listeners, categories and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ongs in the listening part with some explanations and comparative tables. And the melodic lines and rhythmic patterns of them are introduced partially in the staff notations and Chungganbo(Korean traditional score).

I have examined the explanations of music of Kagok, Kasa and Shijo in the textbooks; the esthetics, origin, lyrics, tonal system, categories, performance style, and rhythmic pattern in detail. I also analyzed the Pyoung-Shijo of Seoul style with the staff notation; the key signature, pitch, tempo, vibrato, musical skill, rest and syllable arrangement.